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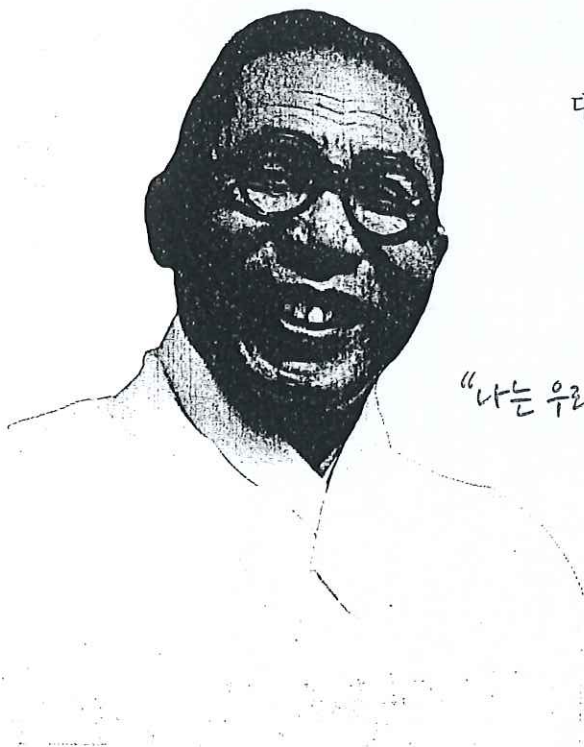
(金九, 1876~1949)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한국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입니다.

청년 시절 김구는 벼슬을 사고파는 부패한 세상에 울분을 터뜨리며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만주로 넘어가 의병 활동을 하며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1919년 3·1 운동 직후에는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193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을 맡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쓴 일기인 『백범 일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김구의 삶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광복 후에도 김구는 우리나라의 완전 자주독립과
남북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